



### 순창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간담회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여성청소년계(자치경찰 사무)는 지난 23일부터 읍내권 중·고등학교 5개교를 방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순창서 여성청소년계장,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사 및 학생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학교폭력 및 비행청소년 등 현안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안전 및 의견을 제시했다.

권미자 순창경찰서장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학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무주소방서, 전기차 화재 대비 진압 훈련 실시

무주소방서는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과 그에 따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3일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화재건수는 총 12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이 발생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화재의 특징 중 하나인 '열폭주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을 침소조로 둘러싸 그 안에 불을 채워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침소조를 이용해 실시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남원소방서, 치매 어르신 실종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으로 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원시 운봉읍에서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아 남원소방서 현장대원들이 지리산 배래봉 일대를 약 3시간 동안 수색한 결과 오후 8시 55분경 구조대상자의 신원을 확보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부착 △치매체크앱 배포감지서비스 이용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 대여 서비스 신청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 어르신의 지문·사진·연락처 등록 등이 있다.

소재실 서장은 "치매 어르신이 배회를 계속하게 되면 탈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예기치 못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매 어르신들이 빠른 시간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성료

### 임실군립도서관, 교과 연계 도서 읽고 다양한 독서 퀴즈·독후활동 진행

임실군립도서관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진로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실군립도서관은 오수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지난 4월 아동센터 아이들의 도서관 견학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걸쳐 책 놀이 강사를 초빙하여 그림책과 연계한 독후활동을 진행했다. '학교가 살아있다!'의 윤일호 작가 및 '초코파이'의 김자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이번 공모사업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임실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촌지역



의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곳곳에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립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과 관련한 사업 외에도 '지역 예술작가 전시전', '책계단 음악회', '평생학습프로그램(우쿨렐레, 하모니카 교실 등)'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무주군자원봉사센터, 행복꾸러미 지원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24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세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의열매(단장 임미화) 20여명이 6개읍면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121세대에 겨울극세사 패드 및 베개 1채씩을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사전 사랑의 열매봉사단, 주민센터, 통반장 등 지역사회내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 선정했다. 대상자의 현황 등을 파악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강우 이사장은 "복지제도의 미흡한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보완하고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더불어 행복하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김제 금구면민의 장 애향장 오승석 해성산업 대표 선정

김제시 금구면(면장 두일균)은 지난 23일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제15회 금구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했다.

금구면민의 장은 '금구면민의 장 규약'에 의거 매년 심사 선발하는 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금구면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 훌륭한 면민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선정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받은 효열장 및 애향장 두 부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



다. 심사결과 효열장은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어 수상 제외되었으며, 애향장에는 금구면과 면민들을 위한 후원, 봉사 및 다양한 기부활동을 한 금구면 출신 출향인인 해성산업 대표 오승석 씨가 선발되었다.

해성산업 대표 오승석 씨는 매년 명절 고향 지역민을 위한 식품(라면 250박스, 송편 170박스) 기탁 및 금구면 효잔치에 공연 및 기념품(연근차 700박스) 등을 후원하여 금구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500만 원) 및 답례품(쌀50포)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등 김제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금구면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제15회 금구면민의 날'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한국자유총연맹 김제시지회(회장 김낙현)는 24일 성산공원 위령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2023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합동위령제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장을 비롯 보훈단체와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추념사, 위족 헌사, 살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해방 이후 공산주의의 폭동사건으로 희생된 자, 6.25 동안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당한 자,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희생된 자,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 희생된 자들 중 347명을 파악하여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애국애족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장수군청 여자탁구단, 전국체전은 동메달 획득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목포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전북 대표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며 값진 결과를 얻었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은 이번 대회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충남 박규현, 윤효빈 선수와 승부를 겨뤄 아쉽게 1대 3으로 패배해 2년 연속 준우승을 안았다.

단체전에서도 제주도(대한항공)와 준결승전 승부를 겨뤘으나 패배해 아쉽게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훈식 군수는 "전북 유일의 탁구 실업팀으로서 전북 대표로 출전해 전국 실력자들 사이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탁구선수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김제 진봉면 지사협, 사랑의 식료품 나눔 봉사

김제시 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광국, 민간위원장 최준영)는 24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식료품 나눔 사업'을 펼쳤다.

이날은 동절기를 앞두고 질병 및 거동불편 등으로 영양결핍 문제가 우려되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80세대에 간편 식인 공탕을 전달하고, 건강상태와 안부를 살필 뿐만 아니라 난방시설 등을 점검해 어려운 이웃들이 시작되는 한파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89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